

‘병원史 전문박물관’ 문 연다

인제대, 근대의학 역사 공간 추진

인제대가 백병원과 근대의학의 역사를 후대에 기리 남기기 위한 작업에 나선다.

인제대박물관(관장 이영식 교수)은 70여년의 역사를 지닌 백병원과 이를 모체로 성장해 온 인제대학교의 역사를 종합한 ‘병원사 전문박물관’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병원사 전문박물관은 우리나라 병원사의 흐름을 살펴보고, 국내최초의 민립 재단법인인 백병원의 역사와 백인제 박사의 업적, 그리고 한국병원의 근현대적 역사에 관한 자료 등이 주요 내용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제대박물관은 전시, 연구 및 교육자료로 활용할 의학

및 병원 관련 자료의 기증을 기다리고 있다.

기증 받은 자료는 기증자의 성명을 기록해 영구히 보존되며, 기증자의 소중한 뜻을 기려 박물관 상설전시와 특별전시,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기획전시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박물관장 이영식 교수는 ‘유물기증은 그 자체로도 매우 뜻 깊은 일이며, 개인이 관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도난이나 훼손 등으로부터 유물을 보호하고 공개전시를 통해 사료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는 소중한 일’임을 강조하며, 백병원과 함께 해온 인제 가족들의 많은 참여로 역사에 남는 ‘병원사 전문박물관’이 되길 희망했다. 병원사 전문박물관은 오는 2007년 3월 개관 할 예정이다.



무의도서 지역 사랑의 인술

◆조선대학교병원은 최근 무의도서(無醫島嶼)지역인 완도군 생일면 덕우도를 방문해 사랑의 의술을 펼쳤다.

내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응급의학과, 통증치료과 등 5개 과 의료진 18명이 참여, 150여명의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상담, 예방법, 재활치료, 통증치료, 투약, 처치 등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이번 무료진료를 실시한 덕우도는 의료시설이 아주 열악한 곳으로 주민 대부분이 고령으로 ‘만성 골 관절염, 허리동통, 소화기 장애’ 등을 앓고 있었으며 통증완화를 위한 처치가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품으로 진료를 받으러 온 주민들을 뿌리치지 못하고 늦은 시간까지 한분도 빠짐없이 성심성의껏 진료를 다했다.

이날 응급의학과 김성중 교수는 도서지역에서 발생할 응급사항 조치방법을 현장에서 교육해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조선대학교병원과 완도군은 ‘희망의 e-Doctor 시스템’을 구축키로 최근 합의했다.

‘희망의 e-Doctor 시스템’은 병원이 없는 무의도서(無醫島嶼)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할 수 없는 환자를 조선대학교병원 의료진이 환자가 있는 곳까지 가지 않고도 영상을 통해 진료하고 처방하는 화상진료 시스템으로 e-Doctor 시스템 가동을 앞두고 생일면 덕우도 주민들과 사전 교류 및 현장방문을 통해 화상진료의 기초자료를 준비해 최상의 화상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진료를 마련됐다.



소냐 박 초청 환우 위안 음악회

◆관동대 명지병원(원장 김병길)은 11일 오후 1시 병원 대강당에서 피아니스트 소냐 박 초청 환우 위안 음악회를 열었다. 명지병원 입원 환우와 보호자,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음악회에서 소냐 박은 ‘불의 춤’ ‘스페인 집 시마을’ ‘소냐티네’ ‘노래와 춤’ 등 총 7곡을 피아노로 연주해 참석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유럽과 미주 등 해외에서 활발한 공연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소냐 박은 12세에 세계적인 음악가를 배출해 낸 줄리아드음악원에 입학해 수료하고 지난 1997년 사상 최연소(당시 16세)로 이태리 이모나 아카데미에 입학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이번 한국 귀국공연은 헝가리, 체코, 스위스 등지에서 유럽순회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소냐 박이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순회 공연에 앞서 잠시 귀국하게 되어 이뤄지게 됐다.

화 속

병원약사회 전은경 씨

한국병원약사회 사무국 재무팀 직원 전은경 씨(전상열·박영란 씨의 장녀)가 9월23일(토) 오후3시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홀에서 백년가약을 밝힌다. 신랑은 홍섭갑·김혜정 씨의 차남 원진 씨.



“다 이해 되셨어요?”

◆고려대 안암병원 간호부가 지난 11일

부터 사흘간 안암병원에서 ‘설명 잘하는 병원’ 행사를 실시했다. 간호부는 이번 행사기간 동안 안암병원 3층 심혈관센터 앞 등에서 병원 안내뿐만 아니라 △위내시경 △전산화 단층촬영(CT 촬영) △양전자단층촬영(PET-CT촬영) △심혈관조영술 △신우조영술(IVP) 등 평소 잘 알지 못했던 검사방법, 내용 및 필요성에 대해 수간호사가 직접 고객들에게 상세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한다. 뿐만 아니라 검사와 관련된 사진 및 내용을 로비에 게시해 관심 있는 고객들이 언제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의대 이색수업 인기

◆을지의과대학교가 이번 가을학기에

새로 개설한 ‘글로벌 시티즌십’이란 수업이 교양선택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과목개설 후 수업가능 정원인 230여명이 모두 마감돼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수업은 ‘한국의 전통예절 및 인사법’을 시작으로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 및 화장법 △공연장에서의 에티켓 △테이블 매너 등 매주 한 가지씩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된다. 이를 위해 11일에는 한국전례원 대전지부 이원복 원장을 초청해 한국의 전통예절에 관한 강의와 우리 옷(한복)의 올바른 옷차림 법에 대해 실습위주의 수업이 이뤄졌다.

하버드의대 장익경 교수 초청진료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유일한 하버드의과대학 심장내과 전문의인 ‘장익경 교수’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심장혈관센터(강동구 상일동소재)에서 특별진료를 실시한다.

이번 초청진료는 심장질환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국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심장혈관센터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장익경 교수는 현재 미국 하버드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1983년부터 심근경색증과 같은 급성관동맥증후군의 진단과 치료분야 연구에 앞장서 왔다.

한국인 심장내과 전문의로서는 세계 최초의 국제심근경색연구(MINT), EVOLVE 연구 등 세계적인 임상연구의 총책임자를 역임했다.

1999년부터는 최첨단 진단방법인 Optical Coherence Tomography(OCT)를 이용한 관상동맥질환의 조기진단법 개발 및 세계 최초 임상연구를 진행해 왔다.

또 국제학술회의 및 권위있는 국제학술지에 심근경색증 발생이 위험한 환자에서 조기진단으로 치명적인 사건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심장혈관센터 김종진 교수는 “장익경 교수는 심장내과부분에 있어 세계최고의 명의로 손꼽을 수 있다”면서 “이번 초청진료는 여러가지 이유로 미국 하버드의대 부속병원까지 가서 진료를 받아왔던 사람이나 심장질환으로 고생하는 국내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미국까지 가지 않아도 선진진료를 접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심장혈관센터는 장익경 교수의 초청진료와 함께 심장질환에 대한 국제심포지움도 아울러 개최할 예정이다. 진료예약 및 문의는 02-440-7690(배소희 코디네이터).

장익경 교수는 1980년에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1980~87년 벨기에 루벤대학교 부속병원 내과전공 의과정 수료 및 심장내과 전공 △1987년~현재 미국 하버드의과대학부속 메사추세츠 제너럴병원 심장내과 교수로서 재직 중이다.